

흙살림, 잔류농약 분석 320항목 확대



흙살림은 지난 8월부터 잔류농약 분석 항목을 320가지로 확대해 유통 농산물의 안전성을 더욱 강화했다.

안전하고 품질 좋은 농산물 농자재 공급에 앞장

흙살림이 안전한 농산물을 공급함으로써 소비자를 보호하고 고품질의 농산물을 생산하는데 기여하기 위한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다.

흙살림 유기농연구소는 지난 8월부터 기존의 245항목보다 75항목이 늘어난 320항목에 대한 잔류농약 분석을 실시하고 있다. 잔류농약 320항목 분석은 기존의 245항목 다성분 분석과 다른 방법으로 GC-MS/MS 및 LC-MS/MS라는 기기를 활용한다. 이를 위해 잔류농약 320항목을 대상으로 해당 분석기기(GC-MS/MS 및 LC-MS/MS)에 분석조건을 세팅하고 해당성분별 검출 한계 및 정량한계 설정 시험을

완료하였다. 이렇게 잔류농약 분석 항목이 늘어나게 되면서 농산물의 생산 저장 유통 단계에서의 유해물질을 보다 엄격하게 관리할 수 있게 됐고, 시중에 부적합한 품목의 유통을 차단할 수 있는 능력도 커졌다. 농산물 뿐만 아니라 유기농자재의 잔류농약 분석항목도 늘어나면서 농자재 사용 농가에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 기대된다.

잔류농약 320항목을 분석할 수 있게 된 흙살림 유기농연구소는 2014년 친환경인증 농산물 잔류농약분석 조사 용역사업과 관련하여 지난 8월(사)한국친환경인증기관협회와 위탁 용역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번

계약은 다산생명과학원(주)에서 주관하고, 랩프런티어 및 흙살림 유기농연구소가 공동 참여하는 형식으로 구성되었다. 지난 8월 18일부터 접수를 시작해 친환경 농산물로 잔류농약분석 조사를 시작한 이번 사업은 11월 30일까지 진행된다. 한편 흙살림 유기농연구소는 농약분석과 관련하여 안전성 검사기관(농산물품질관리원), 유기농자재시험연구원(농촌진흥청), 농약시험연구원(농촌진흥청)으로 지정받은 공인 분석기관으로 농산물의 잔류농약 분석, 유기농자재 등록을 위한 잔류농약 분석 및 유기합성농약 등록을 위한 이화합 및 잔류분석을 진행하고 있다. 문의는 흙살림 유기농 연구소 홍정옥 043-292-8179.

“아이들의 미래를 생각하는 유기농업”

서울시 교육청 교육지원청 급식담당자 흙살림 농장 견학

지난 8월 27일 충북 괴산 토종 연구소에서는 서울시 교육청 교육지원청 급식 담당자 40여 명이 친환경 산지 체험을 했다. 최근 한 공중과 방송의 친환경 유기농 비평으로 인해 소비자들의 신뢰를 일부 잃어가고 있는 분위기 속에서 진행된 이번 체험은 친환경에 대한 믿음을 확고히 다질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이태근 흙살림 회장은 친환경 농업의 이해라는 강연을 통해

친환경 농업의 어려움을 토로했다. 또한 친환경 농업은 생산 인증 분석 유통 정책 철학이 한데 어우러져야 가능한 일임을 밝히고 특히 철학이 중요함을 강조했다. 우리의 경우 급식은 아이들의 건강 때문에 출발했다. 하지만 외국의 경우엔 환경 때문에 선택하는 경우가 많다. 친환경 농업은 미래의 농업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며 농약 분석 중심의 친환경이 아니라 건강과 생태

를 함께 생각할 것을 당부했다. 참가자들은 이어서 흙살림 농장의 생산 과정에 대한 설명을 듣고 토종벼를 심어 놓은 생애는과 하우스 시설 제배 현황을 둘러보았다. 또 하우스에서 자라고 있는 가지와 방울토마토, 열무를 수확하는 체험도 했다. 이번 행사에 참가한 급식 담당자는 산지 체험을 많이 다녀왔는데 흙살림처럼 친환경 전반에 대한 이야기를 전달하는 곳은 없었다. 정책에 큰 도움을 얻었다”며 뿌듯해했다. 다른 담당자



서울시 교육청 교육지원청 급식 담당자들이 흙살림 농장을 방문해 토종벼를 심은 생태논을 견학하고 있다.

는 “농장을 이렇게 예쁘게 가꾸기 위해 얼마나 고생했을까”라는 생각부터 들었다. 우리가 현장을 알아야 선생님과 학생들에게 친환경 농업에 대해 정확히 전달할 수 있을 것이다”며 특히

농산물은 맛이 계절마다 다를 수밖에 없다는 강의를 인상적이었다. 체질 맞았을 때로 농산물을 요구하는 것이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됐다고 감상을 전했다.

흙살림 도서 할인판매

미국의 유기농업은 보피는 토마토의 역사를 우리나라 유기농업에서 1호인 최병철 박사가 공들여 번역했습니다. 농업의 본질은 생명이며, 그 근원은 흙에 있음을 알리고 있습니다. 흙에 대한 애정으로 가득한 흙살림 회원들에게 특별 할인 판매합니다.

Pay Dirt (생명농업 원리 | 농업성인 | 흙과 건강) 각 권 9,900원 → 13,000원 (회원 포함)

등록번호 303-01-000315 |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동 350-11 | 흙살림연구소

흙살림연구소 유기농업총서 시리즈 판매중

흙살림은 자연이 안고 있는 어두러지는 태세를 만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노력의 과정이 흙살림 유기농업총서에 담겨 있습니다. 유기농업총서를 통해 흙과 농업과 환경을 살리는 길을 모색해보세요.

농사짓는 즐거움 | 유기농업이 희망이다 | 참농부 흙을 살리는 기쁨, 땅 위에 사는 기쁨 | 한방영양학 개론 유기농업 이것만은 알아야한다 | 이 땅에서 농업을 하는 의미 *흙살림 회원은 10% 할인된 가격에 구매합니다.

구입 및 문의사항
사무국 도서 담당 043-833-5004

폐기물' 없는 재생 시스템 채택

IFOAM 실행지침 중 자재와 오염물질

IFOAM(세계유기농업운동연맹)의 농업과 가치사슬을 위한 최선의 실행 지침'의 C. 경제적 차원(거래는 번영으로 인도한다)의 네 번째 항목인 자재와 오염물질'을 소개한다.

■ 가치와 가이드라인

● 진실로 지속가능한 재생적인 시스템에서 폐기물'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는 모든 것이 이용되고, 그 이용이 다할 때 그 물질의 구성성분은 유용한 방식으로 그 시스템의 다른 부분으로 변형되거나 흡수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자연자원에 대한 수요와 폐기물 처리의 영향을 줄이는 것은 지구에 있는 모든 사람과 조직이 채택해야 할 일이다.

● 토양 영양을 위한 보급원으로 유기 가공에서 온 농업부산물물을 사용하는 것은 농업 생산성을 증대하고 그의 처리비용과 영향을 없앤다.

● 농장 농산물의 폐기물을 최소화 하도록 돕기 위해 과일과 채소의 크기와 모양이 일반적으로 그것들을 시장에서 배제하기 위한 근거가 되어서는 안 된다.

● 사회정의가 우선시 되는 곳에서 온 물질만 사용하는 것은 사람들의 삶이 그들 물질의 사

용에서 부정적으로 영향 받지 않게 보장하도록 돕는다.

● 독성 물질의 사용과 발생을 줄이는 것은 그들이 인간을 포함하여 토양, 물과 토지에 근거한 생명체에 끼칠 수 있는 부정적 효과를 줄인다.

● 농장과 농장 작업자들은 이웃의 오염물 무단침입 때문에 벌금이 부과되거나 행정적, 법적, 경제적 혹은 물리적으로 고통을 받아서는 안 된다.

■ 실행 사례

● 재생되지 않는 물질의 원천은 지구에서 그것들을 추출하는 것이 환경에 중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에 고려하는 것이 중요하다. 농부들이 그들이 구입하는 자재들의 실제 원천을 아는 것은 대개 어렵다. 최상의 실행은 다음 물질들의 사용을 피하기 위해 공급자들과 함께 알아볼 것을 제안한다.

○ 산호초, 원시림 혹은 보호되는 야생 서식처를 포함하여 보호되는 환경이나 보존가치가 높은 지역에서 추출된 물질

○ 물 공급, 식물 및 동물, 인간을 포함하여 추출지역 자체의 경계를 넘어 그들 지역 환경에 파괴적 효과를 가진 것으로 알려진 광산이나 기타 원천에서 온 물질

○ 기본적인 인권이 침해되는 원천에서 온 물질

● 농약 잔류, GMO 혹은 중급속 오염물질을 많이 가진 것으로 의심되는 물질은 사용하지 않는다.

● 농부들은 앞서 언급한 기준을 충족하면서 더 가까운 지역을 선호하며, 원산지에서 사용처까지 그 물질 이동의 부정적인 환경 발자국을 최소화한다.

● 가공업체는 그들의 제품 흐름을 농부 및 운영체들과 통합하여, 가공 흐름의 농업 부산물이 낭비되지 않게 한다. 부산물은 오염되지 않게 유지되며, 토양 개량이나 동물 사료나 기타 적절한 것으로 재생되도록 농부나 다른 운영체에 되돌려진다.

● 포장재는 최소화된다. 선호도 순서: 재사용되고 재순환되는 물질이 선호되고, 이것들은 또한 재사용 가능하거나 재순환 가능하거나 퇴비화가 가능하다.

● 독성 물질의 사용은 필요한 최저 수준으로 최소화 된다.

● 운영자들은 농장이나 주위독성 물질을 사용하지 않는다. 그러나 그들은 장비 청결제, 자동차 유체 등 같은 독성 물질을 사용할 필요가 있을 수 있다. 그들은 모든 독성 물질과 토양, 물, 동물 혹은 수확된 생산물 사이

에 접촉을 피한다.

● 운영자가 환경에 방출하는 모든 물질은 그들이 토지와 수계에 다시 들어갈 때 유독하지 않은 성분으로 분해되는 것으로 알려진 물질이다. 다른 모든 물질은 환경오염이나 건강에 부정적 효과를 피하는 방식으로 처리된다.

● 취급자들은 물질 없는 실행이 효과가 없는 것으로 증명되거나 이들 물질의 사용이 이 자료에서 기술된 기타 환경 영향 요인들과 관련하여 유의적으로 유익한 것으로 증명될 때에만 좋은 위생 조건과 식품 안전을 보장하는 수단으로 살생 물질을 사용한다. 모든 경우에 사용되는 물질은 위에서 기술된 기준(생분해 가능성 등)을 따른다.

● 가치사슬의 모든 접점은 그들의 생애/장기간 사용가능성의 목표에 대해 배려하는 방식으로 그들의 운영체에서 사용되는 내구성 있는 제품들을 취급한다. 재사용되지 않고 재순환되지 않는 아이템들은 환경오염이나 건강에 부정적인 효과를 회피하는 방식으로 처리된다.

● 농부들은 그들 운영체에 대한 오염 위협을 안다. 그들은 다음을 통해 농장에 들어올 수 있는 오염원에 주의할 기을인다.

○ 공기(예, 어떤 병해충을 방

제하기 위해 이웃 농장 및 기타 기관, 정부의 항공살포 프로그램으로부터 바람에 의한 부유)

○ 물(관개나 지하수에서 양분, 병균, 해충, 잡초 씨, 혹은 기타 오염 물질)

○ 투입재

● 농부들은 오염물질에 농장이 노출되는 것을 피할 목적으로 오염에 기여할 수 있는 다른 단체들과 공개적이고 규칙적인 의사소통을 가지려고 노력한다.

○ 이웃 농장, 공장 혹은 기타 기관들

○ 지시받은 화학 살포 프로그램에 책임 있는 정부기관

● 법률 내에서 활동하는 동안 운영자들은 마을이 같은 조직과 함께 그들이 공동으로 가진, 예를 들어 오염 공장, 큰 관행농장, GMO 증식 등의 오염 위협에 대응한다.

● 위에서 언급한 기본적인 성실함에 더하여 농부들은 다음과 같이 오염을 회피하는 데 필요하거나 도움이 되는 물리적 실행을 채택한다.

○ 댐, 둑 혹은 우회 운하 건설

○ 완충지대 및 나무나 생울타리와 같은 살아있는 방벽 설치

○ 바람의 패턴을 알기 위해 풍향계 및 유사한 기구 설치

글 최관호, 휴살림연구위원장

흙 단면표본 (Soil monolith)

흙을 이해하고 관리하는 필수도구

살아있는 건강한 흙은 식물뿌리가 뻗을 수 있는 흙층의 깊이(斷面)가 충분하고 생물이 필요로 하는 물과 공기가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는 공간(孔隙)이 적당하게 분포한 구조가 발달한 물리적 조건을 지니고 있다. 식물생육은 흙의 성질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흙은 암석에서 출발하여 풍화와 생성과정에서 단면이 형성된다. 모래 미사와 점토의 최종입자로 남게된 이들 입자의 입경분포비율을 토성(土性)으로 표시하여 흙을 규정하고 생산력을 결정하는 주요인자로 활용하고 있다. 토성은 흙의 몸체를 구성하고 작물생육에 필요한 양수분을 저장하는 근간으로 어느 작목을 선택하든 우선적으로 확인할 성질이다. 흙을 분류하는 최소단위의 흙을 페돈(pedon)이라 하는데 그리스어원인 자연토피(ped)

에서 기원한 것으로 흙(earth) 또는 땅(ground)이란 뜻을 지니고 있다. 페돈의 기초단위는 흙층의 깊이가 50~200cm이고 흙의 균일도에 따라 최소표면적이 1/3~3.3평의 3차원의 입체적인 토층이다. 페돈은 흙을 분류하는 기본단위로 정의되지만 실제로 이를 현지에서 적용하기에는 규모가 작아 동일한 페돈이 연속적으로 이어진 집합체(polypedon)가 흙을 구분하는 단위가 된다. 동일한 흙의 집합체를 흙의 기본분류단위인 통(統)으로 정의하여 이를 표본으로 만들어 어디에서나 실물과 같이 관찰할 수 있게 한 것이 흙의 단면표본이다. 표토토성은 토양구(soil type)로 통을 세분화하는 기준이고 표본에서도 토성은 층위를 구분하는 특성이기도 하다. 농업과 학원 토양비료과에는 통별로 가로(폭)30cm, 세로(깊이)100

cm와 두께2cm내외의 표본을 만들어 전시하고 있는데 이는 세계적인 토양연구소나 박물관에서 일반화된 방법으로 제작된 보통크기의 표본이다. 네덜란드 와게닝겐(Wageningen)에 소재한 국제토양정보센터(ISRIC, International Soil Reference and Information Centre)는 처음 세계토양도를 만들기 위하여 토양박물관(World soil museum)으로 출발한 기구로 토양정보와 토양도, 토양정보의 활용과 이와 관련한 교육훈련을 담당하면

서 전 세계로부터 대표단면표본 1,000여개를 제작전시하고 있다. 200여 평에 달하는 상설 전시관에는 100여개의 단면표본이 번갈아 가며 전시되는데 이와 함께 토양생성인자의 분석내용이 옆에 첨부되어 이해를 돕고 있다. 또한 표본시료는 센터의 기준분석법으로 분석하여 참고(reference)용으로 보관실에 영구보존하여 국제적인 흙의 비교연구를 강화하고 있다. ISRIC의 주요 연구업적은 토양비료과에서 수행하는 업무

와 유사하여 원격탐사(remote sensing)에 의한 세계토양의 황폐화평가(GLASOD), 세계토양의 수치화(SOTER) 등과 이들 자료의 지도화(cartography), 토양분석 표준화사업을 수행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해 정기적인 교육, 워크샵, 세미나 등을 실시하여 토양 지식 전파와 이해증진을 위해 진력하고 있다. 이제 흙 단면표본은 흙을 이해하고 관리하는데 필수적인 도구로 이용하게 된 것이다.

글 신계성, 휴살림 고문

발행소 충북 괴산군 불정면 한불로 1136(영천리 528) | 발행인 편집인 이태근 | 등록번호 충북리010-25(1998년 9월 3일) 본부 (367-911)충북 괴산군 불정면 한불로 1136(영천리 528) · 전화 043)833-8179 전송 043)833-2959 오창사무소 (363-885)충북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각리1길 85(각리 642-6) 오창벤처단지 안 전화 043)216-8179 전송 043)216-2959 | 청주센터 (363-923)충북 청주시 청원구 북이면 대울다락말길 93-13 전화 043)212-0935 전송 043)216-0936 | 토종연구소 (367-912)충북 괴산군 불정면 쇠실로 286-138(삼방리 186-1) 전화 043)833-5004 전송 043)833-5007

괴산군 유기농업 리더 선도농가 견학

옥천 산계뜰, 흠살림 푸드 등 방문

지난 8월 12일 괴산군 유기농업 리더 교육생들은 선도농가 견학을 통해 유기농업의 생산 형태, 유통과정 등에 대해 배우는 시간을 가졌다.

선도농가 견학은 충북 옥천의 산계뜰 친환경농조합법인(이하 산계뜰)과 청주의 최기형 농가, 흠살림 푸드를 방문하는 일정으로 진행됐다. 이선우 산계뜰 대표는 수도작과 관련해 포트를 쓰는 옥묘가 건강하고 수량 확보에 장점이 있다는 점과 우렁이 농법을 통해 관행농법보다 피를 더 잘 방제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최기형 회장은 현재 새싹 채소를 재배하고 있으며, 새싹 채소를 통해 매일 수 천만 원의 조수입을 올릴 수 있다는 사실을 전달했다. 흠살림 푸드에서는 친환경농산물

의 유통과정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알려주었다.

이번 견학에 참석한 교육생은 “유기농업이 아직은 많이 힘들다는 것을 느꼈다. 그래서 농민들이 한데 뭉쳐서 공존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이선우 회장의 말씀에 공감하게 됐다”는 소감을 밝혔다. 다른 교육생은 최기형 회장의 하우스 주위가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는데 이것이 농사를 잘 짓는 노하우 중의 하나라는 것을 알게 됐다”고 전했다.

교육생들은 이번 견학이 농사를 막무가내로 짓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을 만나서 정보를 함께 나누다 보면 보다 현명한 방법을 찾을 수 있다는 점을 배울 수 있는 좋은 경험이었다고 평했다.



지난 8월 12일 괴산군 유기농업 리더 교육생들은 충북 옥천의 산계뜰 친환경농조합법인을 방문하고 선도 농가를 견학했다.



흠이 주는 선물' 신탄진 매장 개장

지난 8월 20일 대전 대덕구 석봉동에 ㈜오가닉 기반의 '흠이 주는 선물' 신탄진 매장이 개장됐다.

친환경농식품 유통전문기업인 ㈜오가닉 기반은 이번 매

장을 통해 친환경 주 잡곡류와 과일 과채류, 채소, 가공품, 축 수산물, 생활용품 및 도시농자재 등을 공급 판매

장에서 생산된 유기농 과채

류와 채소류도 만날 수 있다. 한편 ㈜오가닉 기반은 9월 2일 세종시 노을3로 19번지에 세종 매장을 개장한다. 신탄진 매장 문의 042-936-8179.

튼튼칼

- 수용성 칼슘공급 칼슘 17%
- 무농약재배까지

1L 10L

흠살림 라임

- 서스펜션 유기농 칼슘 35%
- 친환경유기농자재 목적공시제품
- 공사-4-1-25

1L

잘잡아

- 유기농자재목적공시
- 공사-3-5-15
- 토양살충용 입상제
- 식물추출물 함유. 기계 살포 가능
- 식물 뿌리 피해 해충에 효과적

5kg

벼도열병, 딸기 흰가루병,
구기자흰가루병 잡아라!
예방과 방제를
겸비한 작물 보호제,
일살림!

흠살림 미생물 배양기술과 농촌 진흥청 특허 미생물 (특허번호 100407074)로 흠과 환경에 유익한 제품입니다.
*등록번호 : 37-살균·1 *등록명 : 바실러스서브틸리스 제이케이케이238 역상제

구입 및 공급 문의 | 043-216-8179 농자재 사업본부 | shop.heuksalim.com

정밀하고 신속한 흙살림 안전성분석안내 [공인분석기관]

[흙살림부설연구소]는 친환경 농업 및 친환경 농산물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독보적인 노하우를 바탕으로 다양한 분야의 분석업무를 체계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구분	분석항목	*분석비(원)	분석기간(일)	
잔류농약 (농산물 및 토양)	단성분	1 항목	110,000	
	다성분	102 항목	140,000	
		177 항목	220,000	
		245 항목	280,000	
유기질 비료 및 퇴비	유기물, 중금속, 발아율 등 1개 항목	4,000~40,000	5~14	
토양	이화핵(시비처방서 포함)	질소 등 9항목	30,000	
	중금속	카드뮴 등 유해 8성분	88,000	3~7
GMO	콩	150,000	3~10	
	옥수수 및 혼합품(옥수수+콩)	200,000		
쌀·현미 품종검사	정성	맵쌀	3~10	
	정량	맵쌀		200,000
		참쌀		300,000
미생물	일반미생물 1종	20,000	7~14	
	병원성미생물 1종	30,000		

*분석비 : 부가세 별도

협약을 통한 분석비할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분석 · 잔류농약 043-292-8179 (담당 : 홍정옥, 박인영) · 중금속 및 퇴비 070-4035-4958 (담당 : 강수진)
 상담 · 일반 및 병원성미생물 072-4035-4658 (담당 : 김준근) · GMO, 쌀현미품종, 토양이화학 070-4035-4958 (담당 : 강수진)

흙살림 미생물배양 배지종균 공급시작

제품구성

- 흙살림 바실러스 메디움 및 종균
- 흙살림 유산균 메디움 및 종균
- 흙살림 효모 메디움 및 종균
- 흙살림 광합성균 메디움 및 종균
- 흙살림 방선균 메디움 및 종균

제품 특징 및 효과

- 20년간 미생물 연구와 개발로 탄생한 전문배지 및 종균 배양 세트
- 미생물 배양에 최적화 된 균일하고 안정된 배지
- 고밀도 배양이 가능한 배지 및 종균 공급
- 다량의 효소와 생리활성물질 분비

배양문의

- 양병근 박사 070-4035-4658



여름 토마토 재배에 도전하다



한재오 씨의 토마토 밭은 국내에서는 흔치않은 알칼리 토양이라 재배가 쉽지않다.

흙살림 생산농가 탐방 - 강원도 평창 한재오 (토마토)

해발 300m 위치에 하우스 짓고 농사

다무만 키웠어. 쫓쫓"

강원도 평창군 미탄면에서 토마토 하우스를 하고 있는 한재오 씨의 시름이 깊다. 7월 무더위에 꽃이 제대로 열리지 않아 열매를 찾기가 힘들어서다. 지금쯤이면 8화방이 열려야 하는데 겨우 5화방에 그치고 있다. 또한 그 무더위에 수정을 위해 갖다 놓았던 벌통 4개도 씨가 말랐다. 2통 정도는 다시 갖다 놓아야 할 형편이다. 게다가 8월엔 꽃은 날씨가 많아 일사량이 부족하다 보니 그나마 열린 토마토도 잘 익지 못하고 있다.

친환경 안했다면 토마토톤이라도 뿌려서 수정시켰을 텐데... 친환경 농사 지으면서 어디 그럴 수 있나." 그래도 이런 농부의 마음을 알아서일까. 많지는 않지만 토마토 줄기에 매달린 열매들이 참 잘지고 싹하다.

■ 여름 토마토 도전

한재오씨는 원래 미원 지역에서 일본 수출용 토마토를 재배해 왔다. 그런데 일본에서 토마토가 과잉 생산될 때면 수출에 애를 먹어 눈을 국내로 돌렸다. 여기에 여름 토마토로 승부를 걸고 싶어 해발 300m에 위치한 이곳 미탄면에서 지난해부터 토마토를 재배하고 있다. 하지만 여름 토마토 농사가 그리 만만한 것은 아니었다. 먼저 800평 하우스를 짓기 위해 2톤 트럭 15대 분량의 돌을 치워냈다. 그리고 이곳 토양이 한국에서는 흔치 않은 알칼리성 토양이라 공부를 새롭게 해야만 했다. 우리나라의 재배 매뉴얼이 산성 토양에 맞춰져 있다보니 이곳 실정과 맞지 않아서다. 그래서 미국에서 발행된 알칼리 토양 재배 매뉴얼 원서를 찾아 사진을 옆에 두며 공부하고 있다. 알칼리 토양에선 마늘 양과 백

합과 작물이 잘 맞아. 토마토의 경우엔 미량요소들이 불용화되다보니 항상 엽면시비하는 방법 밖에는 없어."

현재 한재오씨가 재배하고 있는 토마토는 슈퍼타과 도테랑. 그런데 올해는 기후 탓인지 유난히 병충해도 심하다. 6월 10일 경 정식하고 나서 20일 후부터 풋마름병이 와서 고생하던 지금은 예방 차원에서 친환경 자재를 뿌렸지만 효과가 별반 없어 잎곰팡이병으로 애를 먹고 있다. 그래도 농부가 어디 이런 시련에 무릎을 꿇겠는가. 여름 토마토에 도전하고 있는 한재오씨에게서도 절대 포기하지 않겠다는 고집이 엿보인다.

친환경 농산물을 먹는 소비자들이 이런 고충을 알고 좀 못생기고 작더라도 사랑해 주면 좋을텐데... 바람이 있다면 그것 뿐이야." 이곳 미탄면 한재오씨의 하우스 안에서 빨갭게 익어가는 토마토가 참 예뻐 보인다. 글 이방현 기자

친환경농업 인증

친환경농축산물 및 유기식품 등의 인증에 관한 세부실시 요령 개정안

의견제출기한은 9월 11일까지입니다. 제출처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인증관리팀

[별표1] 인증기준의 세부사항(제6조의2 관련)

2. 유기농산물

심사사항	구 비 요 건
가. 경영관리 및 단체관리	나) 매년 수확하지 않는 다년생 작물(예: 인삼, 터덕 등)을 2년 이상 재배하고 있는 경우 경영관련 자료를 파종일 이후부터 기록하여야 한다. 다만, 재배 예정지 관리가 필요한 작물의 경우에는 예정지 관리를 시작하는 날부터 기록할 수 있다.
나. 재배 포장·용수 증가	6) 유기종자를 구입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일반종자를 사용할 수 있으나 유기합성농약으로 처리되지 않은 종자를 사용하여야 한다. 7) 모종을 구입하여 사용하는 경우 종자, 상토 및 육묘과정이 유기인증 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며 이를 입증할 자료를 구비하여야 한다.
다. 재배 방법	2) 토양개량과 작물생육 및 병해충 관리를 위해 자제를 사용하는 경우 규칙 별표 1 제1호가목1) 2)의 자제와 법 제37조에 따른 유기농업자제에 한해 사용(사용 시 공시 및 품질인증 취소 여부 확인)하고 사용가능한 자제임을 입증할 자료를 구비하여야 한다. 3) 싹을 틔워서 먹는 농산물 또는 버섯류 등의 재배사와 기구 등을 세척하거나 소독하는 경우 규칙 별표 1 제1호다목1) 허용물질 중 오존수, 이산화염소(수), 차아염소산수를 사용할 수 있다.

5. 무농약농산물

심사사항	구 비 요 건
나. 재배 포장·용수 증가	5) 무농약종자를 구입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일반종자를 사용할 수 있으나 유기합성농약으로 처리되지 않은 종자를 사용하여야 한다. 6) 모종을 구입하여 사용하는 경우 종자, 상토 및 육묘과정이 무농약인증 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며 이를 입증할 자료를 구비하여야 한다.

다. 재배 방법	2) 토양개량과 작물생육 및 병해충 관리를 위해 자제를 사용하는 경우 규칙 별표 1 제1호가목 1) 2)의 자제와 법 제37조에 따른 유기농업자제에 한해 사용(사용 시 공시 및 품질인증 취소 여부 확인)하고 사용가능한 자제임을 입증할 자료를 구비하여야 한다. 3) 싹을 틔워서 먹는 농산물 또는 버섯류 등의 재배사와 기구 등을 세척하거나 소독하는 경우 규칙 별표 1 제1호다목1) 허용물질 중 오존수, 이산화염소(수), 차아염소산수를 사용할 수 있다.
----------	---

8. 취급자(저장, 포장, 운송, 수입 또는 판매)

심사사항	구 비 요 건
다. 원료 관리	1) 원료 인증품(법 제25조에 따라 동등성을 인 받은 유기농식품을 포함한다)을 구입하여 재포장하는 과정에서 인증품의 품질과 순도를 유지하여야 하며 농산물에 화학물질을 첨가하여서는 아니 된다.
라. 취급 방법	1) 인증품 또는 작업장 및 기계 기구 등을 세척하거나 소독하는 경우 규칙 별표 1 제1호다목1)의 허용물질 중 오존수, 이산화염소(수), 차아염소산수를 사용할 수 있다.

[별표 2] 인증심사의 절차 및 방법의 세부사항(제7조 제3항 관련)

- 인증심사 일반
- 현장심사
- 검사가 필요한 경우는 다음과 같다.

- 농립산물
 - 재배포장의 토양 용수
 - 토양(잔류농약) : 개인 신청 농가 및 단체심사 시 선정된 표본농가
 - 생산물 : (1)의 ⑥에 해당되나 유기합성농약 살

포형태 등을 고려하여 토양 보다 생산물에 대한 잔류농약 검사가 실효성이 높은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또는 GMO의 혼입이 우려되는 경우(GMO 검사에 한함)

[별표 4] 인증표시의 세부적인 사항 등(제12조제1항 관련)

2. 납품서, 거래명세서, 보증서 등에 표시하는 방법(예시)

거래명세서			
공급받는자	등록번호 *****	공급자	등록번호 *****
	업체명 **친환경유통		업체명 **친환경작목반(인)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사업장 주소 안양시 만안구 안양로 114		포장장소 안양시 만안구 안양로 172

거래일자	품목	규격	수량	인증번호	인증종류	인증기관
2014.0.0	유기농배추	포기	100	*-**-*	유기농	**인증원

비고 : 공급하는 자와 공급받는 자의 명칭, 거래품목, 거래수량, 거래일이 기재되어 있는 일반적인 거래명세서에 인증종류, 인증번호, 인증기관을 추가하여 기재한다. 문의 : 한국농식품인증원 043-212-0934

작물 충해 관리용 자재



각종 해충을 방제합니다.

500ml

파워진달래

목록공시등재번호 공시-3-2-5

- 천연식물추출물로 인축독성에 안전
- 진딧물, 응애방제에 효과적



500ml

잘들어

목록등재번호 공시-3-5-7

- 천연식물 추출물로 인축독성에 안전
- 각종 해충에 대해 적용 가능



1L

청달래

목록등재번호 공시-3-5-1

- BT제재로 안전
- 나방 및 나비 유충 등에 효과적



작물 병해 관리용 자재

병이 와도 끄떡 없도록!

10L

1L

탄탄탄

목록등재번호 공시-4-2-22

- 방선균에 의한 항생효과
- 발생 전 처리시 효과 증대



500ml

황수화제

목록등재번호 공시-4-2-25

- 천연 향균물질인 황을 간편하게 사용
- 흰가루병에 강력한 효과



스위스 유기재배 과수' 아시나요

FiBL 연구소 - 유기재배 과수 재배법<1>

2015년 말에 되면 친환경농산물 인증 제도 중 저농약 인증이 폐지된다. 현재 친환경 과수재배 농가 중 90% 정도가 저농약 인증인 점을 고려하면 그 여파가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홀살림에서는 과수 재배에 있어 유기농 농법 중 하나인 난쟁이 과수' 재배법을 소개한다. 과수 농가들이 FiBL(스위스 유기농업 연구소)이 연구한 이 재배법을 참고 삼아 친환경 인증을 계속 유지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 편집자 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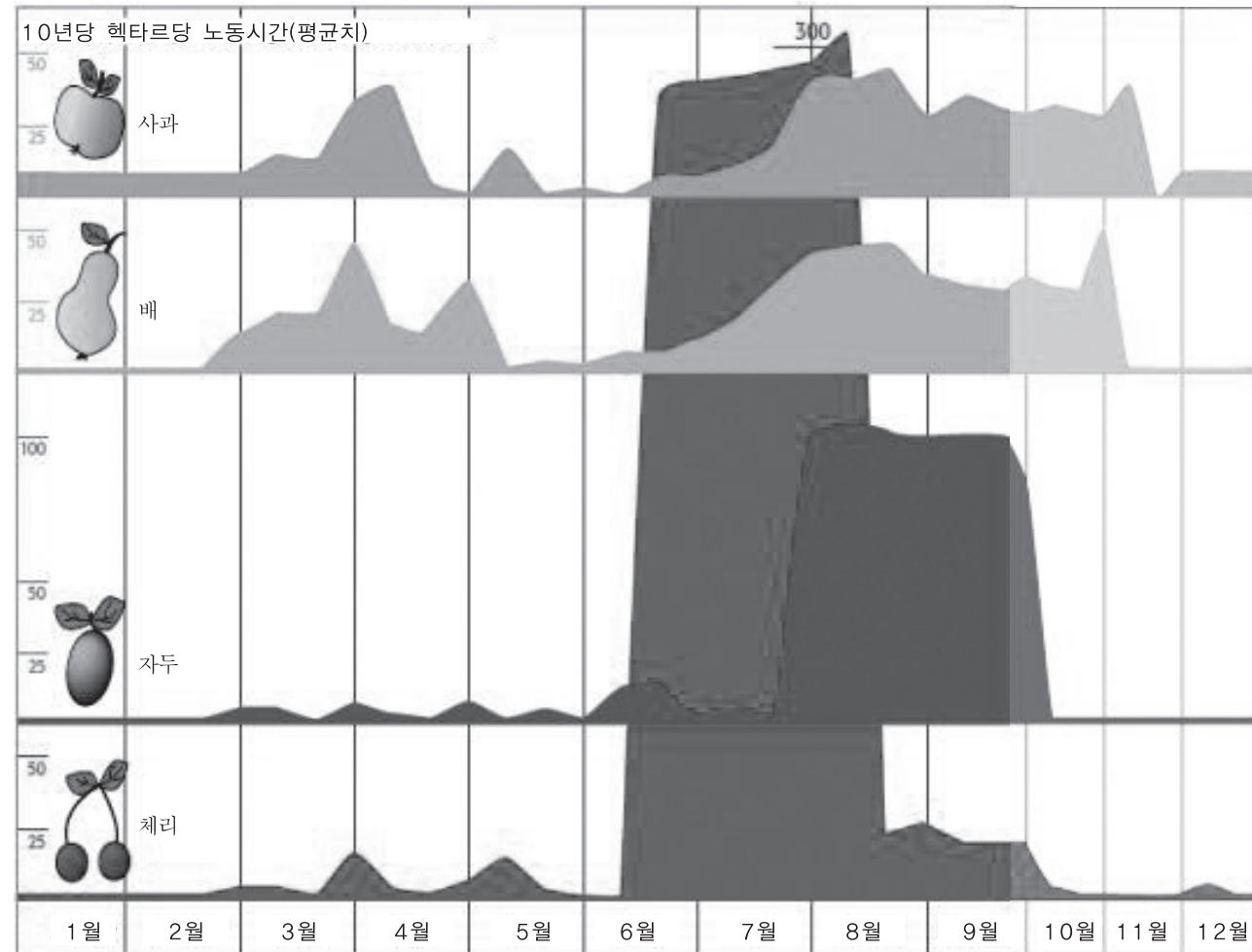
■ 좋은 위치는 농부의 개입을 줄일 수 있게 한다. 과수원을 만드는 것은 많은 비용이 들고, 개인이 소유한 땅이 아니라면 장기간 임대하여야 한다. 그렇기에 위치를 정하는 것은 과수원의 성공에 큰 영향을 주기 때문에 신중하게 선택하여야 한다. 각각의 과실과 대목의 종류와 다양성은 그 지역에 적합해야 한다. 예를 들어 배나무는 겨울과 식물생장 기간 동안 낮은 온도에 민감하다. 게다가 나무의 열이 남-북 축으로 배열되어서 적절한 햇빛을 받아야 한다. 과수를 키우기에 적절한 곳은 ▲ 햇빛이 좋고 낮은 서리에 민감하지 않고 통풍이 잘되는 땅 ▲ 깊고 잘 구성된 흙, 물이 고이지 않고 생물활동이 많은 흙 ▲ 기계사용에 편리한 지형이다. 이렇게 지형이 적절하면 서리방지나 다른 물리적 방제를 위한 경제적인 요구사항이 적어진다.

▼ 연중 요구되는 노동시간 - 많은 노동력을 필요로 하는 시기가 겹치는 경우가 있어 다양한 종을 함께 재배하는 것이 쉽지 않다.

■ 경작 전 5년 계획

- ▲ 첫해 겨울
 - 과일의 종류와 다양성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고 공부하라.
 - 수업을 듣고 농장을 방문하라.
 - 적당한 땅을 선택하라.
 - 다른 과일의 대안과 가능성에 대해서 구매자와 함께 논의하라.
- ▲ 첫해 봄
 - 토양을 개선하라; 녹비가 섞인 비료를 열 사이에 주어라
- ▲ 첫해 6월
 - 묘목 주문을 위해 계약하라.
 - 말뚝을 정비하라. 날씨에 대한 저항성을 높이고 저장에 도움이 될 것이다.
- ▲ 첫해 여름
 - 날씨가 좋다면 심토파쇄를 하라.

- ▲ 두 번째 해 봄
 - 부유물질을 필요로 하지 않는 곳 열 사이에 잡초종자 혼합물을 뿌려라.
- ▲ 두 번째 해 여름 또는 겨울
 - 태풍방지 그물을 설치해라(피해 지역)
 - 지역에 따라서 눈과 바람을 고려해 펜스(1.5~2.5m 높이)를 설치해라.
- ▲ 두 번째 해 가을 또는 세 번째 해 봄
 - 주무른 묘목을 심어라
- ▲ 세 번째 해 여름
 - 수확을 하지 않는다.
 - 꽃을 제거하고 약한 가지의 과실을 제거한다.
- ▲ 네 번째 해 여름 - 첫 수확
 - ▲ 다섯 번째 해 여름 - 첫 번째 다수확



유기농 하니 좋은 사람들과 인연”

유기농업 원로에게 듣는다⑦ 김용길 흠살림 고문

“우리 직업이 뭔지 알아? 나는 풀을 깎는 사람, 아내는 풀을 뽑는 사람.”

김용길 선생(71)의 농담 섞인 자기 소개가 유기농업의 고됨을 잘 나타내주는 듯하다. 김 선생은 1980년대부터 충북 괴산 지역에서 충북육우개발협회와 충북농촌개발회, 신용협동조합, 소비자협동조합 등 농민 운동에 앞장 서 오면서 친환경 농업을 지속해 왔다. 최근 친환경 유기농의 잘못된 부분을 비판한 공중파 방송 프로그램을 보고나서는 원리와 원칙을 저버려서는 절대 친환경 유기농업을 지속할 수 없다”며 바른 길을 걷는 많은 농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기를 소망했다.

수확 땀 소비자들 찾아와 일손 거들어

■ 유기농, 겁을 내며 시작하다
김용길 선생은 현재 충북 괴산군 감물면 백양리에서 5,000평 남짓 농사를 짓고 있다. 원래 이곳은 농촌개발회 재단에서 목장 부지로 쓰던 곳이었다. 소 200마리와 인부 60명이 활동하던 목장을 정리한 자리에 객토를 하고 돌을 주워가며 밭을 만들어갔다. 축사로 쓰던 곳은 콘크리트 바닥이라 이것도 다 걷어내야 하는 등 결코 만만한 일이 아니었다. 더군다나 이 생 땅에 친환경 농사를 짓겠다고 나섰다. 각오는 단단했지만 속마음은 겁으로 가득했다. 당시 아들딸 세 명이 모두 대학생이었어. 농사 한 번 망치면 되돌리기 힘든 상황이었지.” 그래도 사명감을 가지고 덤벼들었다. 물론 초기엔 그 결과가 참담했다. 깨도 안되고 옥수수는 기형이 나오기도 했다. 고추는 아예 절단이 났다. 목표치에 도달한 적이 한 번도 없었다. 겨우 겨우 빗으로 꾸러간 삶이었다. 그래서 생계를 위해 소 10마리를 대부분 키우기도 했는데 오히려 소 값 폭락으로 고생했다. 또 다른 방법을 찾아 인삼 밭을 일구고 사슴, 꿩 등을 키우기도 했다.

■ 동반자, 흠살림을 만나다
김 선생은 풍성한 수확의 달콤



김용길 회장은 콩도 유기농으로 재배하고 있다.

한 맛보다는 고된 노동의 쓴맛만을 삼켰지만 친환경 농사들 결코 포기하지 않았다. 오히려 1990년 현 이태근 흠살림 회장과 함께 일본 연수를 다녀오면서 유기농에 대한 각오를 더 단단하게 만들었다. 당시 일본어도 할 줄 모르는 상태에서 친환경 닭 사육과 유정란으로 유명한 야마기시 농장(산안마을) 등 유기농 관련 농장을 견학하고, 공동체를 통한 유통을 보면서 큰 배움을 얻었기 때문이다.

다음해에는 괴산미생물연구회(흠살림 전신) 초대 회장을 맡으면서 흠살림과의 인연을 지속하게 됐고, 이 인연은 유기농업을 지속할 수 있는 든든한 힘이 되주었다. 1990년대 초반까지 마땅한 친환경 퇴비도 유기농자재도 없던 시절, 흠살림이 균배양체를 생산하면서 땅심을 살려 친환경 농사가 다수 윤택해졌던 것이다. 이후로 흠살림의 유기농자재가 새로 나오면 농장에서 직접 시험해 보며 유기농업을 확대해갔다. 그렇다고 미생물 자재들을 마음껏 뿌려대지는 않았다. 조금씩 조금씩 쓰다보니 효능을 본 것이다. 사람이 아플 때와 마찬가지로 세상에 완벽한 약이라든가 특효약이란 것은 없어. 그저 예방 차원으로 잘 활용하는 것이지. 약을 줄이니 병충해도 오히려 줄어들었지. 욕심 내면 안되는 법이야.”

■ 판로, 걱정이 없다
우리 흠은 꼭 갓난아이 살처럼 부드러워.”
친환경 농사를 포기하고 싶어질 때면 부부가 서로 격려를 해주며 버텨온 게 어언 30년. 이젠 자신감도 조금 붙었다. 예전엔 생계 때문이었지만 지금은 순환농법을 위해 소도 10



30년 가까이 친환경 농사를 지어온 김용길 부부는 이만하면 됐다”며 욕심을 버리고 살아야 유기농이 가능하다고 말한다. 부부의 웃음 속에서 그런 여유로움이 느껴진다.

마리 키우고 있다. 감자 옥수수 브로콜리 콩 고추 배 등 모두 유기농으로 재배하고 있다. 옥수수는 풀이 자라도록 놔두었다가 수확할 때쯤 한 번 자를 뿐이다. 풀과 함께 농작물을 키우다보니 지금도 주위에 선 대가 농약 쳐줄까요. 뭘 그렇게 힘들게 해요?”라며 걱정을 해준다. 그래도 이런 걱정에 아랑곳하지 않는다. 수확한 농산물이 맛있다고 소문났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판로 걱정을 한 번도 안해 봤어. 우리 농산물을 한 번 맛 본 사람들은 다시 찾으니깐. 더군다나 형제, 친척, 친구들한테 소개도 해주고 선물로도 많이 보내주니 오히려 모자랄 지경이지.”
농산물을 수확할 때가 되면 아예 김 선생 농장으로 찾아오는 소비자들도 있다. 하루 목어가며 농사일을 도와주고 직접 농



김용길 회장은 순환농법을 위해 소를 키우고 있다.

산물을 가져가기 위해서다. 서로 간에 신뢰가 쌓이다보니 가능한 일이다. 김 선생은 이런 소비자들을 볼 때마다 유기농에 보람을 느낀다.
친환경 재배법이나 노하우라는 게 딱히 없어. 원리, 원칙만 지킬 뿐이지. 큰 욕심을 부리지 않는 것이 중요해. 그러다 보면 좋은 농산물을 수확하고 소비자들도 만나게 되지. 유기농을 하다 보니 더 불

어 사는 게 삶이라는 걸 알게 됐지.”
그래도 김 선생은 한 가지 걱정이 있다. 바로 농업의 생존이다. 농업이 살려면 친환경이 살아야 하고, 그러기 위해선 정부의 정책적 의지가 중요하다는 것이다. 풀과 작물이 어우러진 김 선생의 농장을 나오며 김 선생의 걱정이 조만간 사라질 날이 오기를 희망해본다.
글 이방현 기자

파리 런던 LA... 세계는 도시농업 열풍

**세계 유기농업 리더에게 듣는다<3>
제니퍼 코크럴킹(캐나다 푸드 저널리스트)**

도시와 농업이라는 말은 전혀 어울릴 것 같지 않은 단어다. 그런데 어느 순간 이 단어가 합쳐진 도시농업이라는 말이 유행처럼 퍼지고 있다. 2012년엔 서울이 도시농업원년을 선포하기도 했다. 이보다 두 해 전인 2010년엔 미국 시애틀 시의회가 공식적인 도시농업의 해로 선포하기도 했다. 이런 흐름은 몇몇 소수의 도시에서만 진행되어서는 안 된다. 파리 런던 LA 밴쿠버 토론토 밀워키 디트로이트 시카고 등 전 세계적인 양상이다. 캐나다의 푸드 저널리스트인 제니퍼 코크럴킹은 도시농업의 열풍이 불고 있는 각국의 도시를 직접 찾아 현황을 살펴보는 작업을 진행했다. 그리고 그 결과물을 <푸드 앤 더 시티>라는 책(사진)으로 엮었다. 흠살림은 세계의 도시농업 흐름을 독자분들께 전해드리기 위해 저자인 코크럴킹과 역자인 이창우 박사의 허락을 얻어 이 책의 내용을 소개한다. 편집자 주



현제 전 세계 씨앗과 씨앗 지킴이, 종자은행에 관한 책을 쓰고 있는 제니퍼 코크럴킹(오른쪽에서 세번째)이 올해 흠살림 토종 연구소를 방문해 관련내용을 취재하기도 했다.

■ 먹을거리의 불안
2003년 광우병 파동, 같은 해 중국 어린이용 유기농 배주스의 비소 파동, 2006년 캘리포니아산 시금치의 박테리아 변종 등 먹거리 불안을 알리는 사건들이 터지기 시작했다. 값싸고 편리하다는 미명 아래 외부 위탁한 대규모 식품 생산의 위험성을 무시할 수 없게 된 것이다.
또 많은 대도시 중심부는 제대로 된 식품점이 자취를 감추고 이른바 '식품사막'으로 바뀌어 갔으며, 그 결과 집 바로 가까이에서 값싸고 영양가 높고 신선한 식품을 구하기가 더 어렵게 되었다. 대개 그 지역에 남은 것이라고는 편의점과 패스트푸드점이 전부였다.
선진 공업국에 사는 사람들이 거의 모든 먹거리를 사는 식품점은 무척 효율적이고 적기 공급 생산하는 장거리 공급망으로 운영된다. 하지만 실상은 이러한 시스템이 너무 효율적이어서 도시에는 어떤 주어진 시간에 겨우 3일치 식품 재고만이 남아 있다는 것이다. 만약 연료위기나 국경 봉쇄, 전쟁이나 환경 재앙이 발생하여 이러한 공급망이 끊기더라도 한 달면 식품점 진열대는 며칠 안에 텅 비게 될 것이다.
2007년에 시작된 심각한 세계 경제 붕괴의 도미노 효과는 여러 나라에서 거의 동시에 특정 식품의 갑작스럽고 극적인 가격 인상이나 그런 식품의 완전한 공급 중단이라는 일련의 식량 파동으로 빠르게 움직였다. 세계 신용 위기가 미국이나 영국 같은 선진 대국의 금융 산업 때문에 일어났지만 그 즉각적인 결과는 이집트, 예멘, 러시아, 인도의 거리와 식

품시장에서 더욱 구체적으로 나타났다. 쌀, 밀, 감자 같은 주요 식품의 가격이 치솟으면서 폭동이 일어난 것이다. 게다가 쌀, 옥수수, 밀 같은 주요 곡물이 이제 급성장하는 바이오연료 산업의 투입물로 여겨지고 있어서 주요 식료품 가격이 화석연료 가격과 연동되고 있다.
산업적 식품은 지난 수십 년 동안 전 세계의 빈민에게 식량을 공급하여 기아를 퇴치하고 세계의 굶주림을 끝내겠다고 허세를 부렸지만 그저 문제를 엄청난게 키웠을 뿐이었다. 문제는 그동안 누구는 과식을 하고 누구는 영양실조에 걸리는 불평등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다는 점이다.
이제 우리는 유전자변형 식품과 농작물을 전 세계의 기아에 대한 해결책으로 내세우는 사람들한테서 똑같은 주장을 듣고 있다. 도시농업 운동이 외부와 접촉없이 일어나고 있었던 것은 분명 아니었다. 산업적 소비자로서 우리가 처해 있는 절망적인 상태에 대해 알면 알수록 도시농업 혁명의 본질이 얼마나 혁명적이고 전복적이며 필연적인 것처럼 보이는지 점점 더 분명하게 다가온다. 도시농업이 도시 공간을 설계하고 이용하는 방법, 식량을 공급하는 방법, 식량 생산자와 지구를 대하는 방법에서 중요한 전환점이 되리라고 기대한다. 도시농업이 그저 한때 반짝하는 녹색 유행'이 아니며, 이 운동의 열기가 식을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는 점을 그 어느 때보다도 더 확신

하고 있다.
■ 세계 각국의 도시농업
▲ 파리
2011년 파리시 공식 웹사이트에는 58곳에 이르는 공동체텃밭 경작 사이트가 올라와 있다. 도시 내 포도밭도 있는데, 파리 대도시권에는 132곳의 도시 및 근교 포도밭이 있고, 파리 시 행정 구역 안에는 10곳의 포도밭이 있다. 2005년 프랑스의 전국양봉 협회는 도시양봉을 지원하고 장려하기 위해 도시 벌 프로그램을

식량파동, 먹거리 불안 탓 도시농업 관심 파리 런던 도심에서 양봉사업도 진행 시카고는 건물 활용한 수직농장' 계획

시작했다.
▲ 런던
3만 개나 되는 얼로트먼트 구역이 있다. 영국에서는 장기 임대 공동체 텃밭을 얼로트먼트라고 한다. 2012년 런던 올림픽 개막 때까지 런던에 2012개의 먹거리 텃밭을 더 만드는 시 지원 운동이 있었다. 대도시 중심부에 있는 소규모 혼합농장으로서 대부분 암소나 닭, 오리, 염소를 키우는 도시농장이 영국 전역에서 붐을 일으키고 있고, 공동체 과수원은 공동체텃밭 경작 동호회만큼이나 빠르게 인기를 얻고 있다.
▲ 로스앤젤레스
로스앤젤레스의 통합교육구에는 현재 생산량이 다양한 학교텃밭 500개가 있다. 로스앤젤레스 카운티에는 70개의 공동체텃밭이 있어 3,900가구가 먹거리 채

배용으로 텃밭을 이용하고 있다.
▲ 밴쿠버
2007년에 밴쿠버 시가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자기 집에 마당에 있는 가구의 절반이 그 공간에서 작물을 기르고 있었다. 밴쿠버 시 웹사이트에는 마당이 없는 밴쿠버 시민이 이용할 수 있는 2,200구획에 이르는 등록된 공동체텃밭 55곳의 목록이 올라와 있다. 또 스핀 농업'이라는 형태의 도시 농업도 있다. 스핀(SPIN)은 소구획 집약(Small Plot Intensive)의 머릿글자를 따온 약어로, 2,000~4,000 제곱미터 정도의 토지 규모로 동시에 여러 곳에서 다양한 종류의 작물을 심는, 도시 시장 출하용 농산물 경작을 위해 특별히 설계된 기술과 작물 선택과 사업계획을 기반으로 한 도시농업을 일컫는다.
▲ 토론토
토론토 시민의 40%가 집에서 여러 가지 먹거리를 기르고 있으며, 다른 많은 사람은 시 전역에 퍼져 있는 공인 공동체텃밭 226곳에서 먹거리를 채배하고 있다. 토론토 시에는 총 구획이 1,674개에 이르는 얼로트먼트 가든도 19곳 있지만 얼로트먼트 구획을 갖고 싶어하는 대가족이 500명이나 된다. 가로 중앙분리대, 휴수 요역지, 전기가스 선로용지, 공원, 마을 광장과 도서관, 법원, 학교, 시청 건물 주위의 땅에 식물 식물을 심는 생산적 공공 경관 운동도 벌어지고 있다. 이는 시민의 먹거리 지식을 늘려 '적행'으로부터 벗어나기 위

한 사업이다.
▲ 밀워키
틸라피아라는 물고기와 농어가 먹거리 작물의 비료를 만들고 작물이 다시 수조의 물을 여과하고 정화하는 폐회로 영양 순환체제인 '양어수경 시스템'이 도입되었다. 초기 도시농장은 노동을 통해 경벌죄에서 벗어나려고 하던 아이들이 공동체 토지에서 먹거리를 길러서 마을 공동체에 그 먹거리를 다시 기부함으로써 그 목적을 달성했다. 꽃 폭탄과 먹거리 텃밭이 효과적인 범죄 예방 도구가 된 셈이다.
▲ 디트로이트
쇠락한 공업도시에 한 사업가가 세계 최대의 민영 도시농장이라는 야심적인 사업을 제안해 논쟁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현재로서는 시를 살리기 위한 방책 중 도시농업이 유일하게 검토 중인 제안이다. 만약 시가 도시농장에 허가를 내 준다면, 세계는 디트로이트가 후기 산업도시로 전환하는 가장 급진적인 실험장이 될지 지켜볼 것이다. 만약 그렇게 된다면 디트로이트는 도시농업의 세계적 중심지로 떠오를 것이다.
▲ 시카고
시카고의 산업개발업자가 더 플랜트'라고 부르고 있는 새로운 도시 체이용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실내 다층 농장이라는 아이디어로 수직농장'이라는 아이디어 중 가장 현실성이 있어 보인다.
▲ 쿠바
쿠바 국민은 모든 도시의 빈 땅을 작은 소매점이 붙어 있는 도시 유기농 농장인 오르가노포니코'로 바꾸었다. 이 농장은 농민들이 소유하고 운영하는 상당히 전형적인 협동조합이다.

생태하천 관리와 생태연못 만들기

텃밭 정원 가꾸기 <7>

직선 형태 피하고 경사 비대칭 단면 유지

연일 이어지는 비로 인해 하천이나 습지의 중요성이 어느 때 보다도 크게 느껴지는 계절이다. 그동안 하천이나 연못은 단순히 빗물을 배출하고 일시적으로 모아두는 재해방지와 용수의 저장 및 활용이라는 측면에서 그 필요성이 인식되었던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최근에 와서는 이러한 치수 이수기능과 함께 자연생태계의 보전공간으로서 다양한 생물이 살아가는 생물서식지로서의 기능 및 친수기능을 부여하고 있다. 이로써 주변지역에서 살아가고 있는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도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최근의 하천조성이나 생태연못 관리의 방향은 본래의 하천이나 자연 그대로의 연못 모습에 최대한 가깝게 유지되도록 하는 것이 크게 강조되고 있다. 즉 하천이나 연못이 갖는 자연성을 최대한으로 살리면서 그 본래의 역할이나 기능이 상실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하천이나 연못에는 물고기, 곤충, 파충류 등 수많은 동물과 각종 식물이 활동하거나 자라고 있는데, 이러한 동식물들은 어린이에게 좋은 놀이상대 또는 자연공부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또한 어른들에게도 반딧불이 반짝이고 벌레 울음소리 가득한 공간은 고향 같은 포근함을 주기도 한다. 하천이나 연못에 많은 곤충과 동식물들이 산다는 것은 사람들에게 아직까지도 우리가 자연을 잃어버리지 않았다는 색다른 기쁨을 줄 수

있다고 생각된다. 요즘 농촌에선 농업생산을 중심으로 하는 1차 산업을 체험학습이나 교육과 결합하여 다양하게 그 부가가치를 향상시키려는 노력들이 이루어지고 있다. 집 앞이나 마을을 지나는 도랑이나 실개천을 생태적으로 정비하고 관리하여 친환경 먹거리의 생산 및 판매와 함께 물이 흐르는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고 있는 것이다. 이를 통해 생산과 가공, 서비스 산업이 어우러진 6차 산업으로서의 농업 생산 및 관련 서비스를 위한 여건을 조성하는 사업들이 다양하게 시도되고 있다. 특히 농장 주변지역이나 마당의 일부분을 활용하여 잠자리 연못을 만들거나 개구리가 뛰어다니는 생태연못을 조성한다면 한층 더 자연에 가까운 친환경 농촌 생태공간을 만들게 될 것이다. 생태하천을 정비하거나 잠자리 연못을 만들 경우 먼저 직선형의 형태를 피하고 원래의 하천이나 자연형 연못이 갖고 있던 다양한 경사나 비대칭적인 단면의 형상을 유지하는 것이 시각적으로도 자연스럽다. 또한 잠자리나 개구리, 다양한 곤충류의 서식환경의 조성에도 도움이 된다. 하천에서는 여울(하천바닥이 작은 급경사를 이루어 물의 흐름이 빠른 부분)이나 소(하천 주변의 물웅덩이)가 자연적으로 만들어 지도록 하거나 소규모로 직접 만들어 주는 것도 좋다. 생태연못을 조성하는 경우에는 물이 들어오는 지점과 나가는 지



생태연못을 만들고 있는 모습.

점의 높이를 다르게 하여 자연 하천에서 여울이나 소의 기능을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주도록 한다.

하천이나 연못의 가장자리 구역은 육지와 물에서 사는 생물과 곤충 및 작은 동물들이 함께 서식하는 공존공생공간으로서 이 지역을 천이역(遷移域)라고 할 수 있다. 콘크리트나 사석과 같이 단단한 호안으로만 조성되지 않도록 하고, 물의 흐름에 의하여 침식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단단한 재료의 사이사이나 상부에 복토를 통하여 다양한 수생식물들이 부착되어 생활할 수 있도록 한다.

하천이나 연못의 호안 식재는 강우나 홍수시에 사면을 보호하는 기능과 함께 수질정화 및 생물서식처 조성과 경관의 향상에 기여하게 되므로 다양한 식물들을 도입하여 계절의 변화와 함께 수질개선을 도모하는 것이 좋다. 글 신인환 조경기술사 및 휴살림 도시농업자문위원



▲독일의 자연형 하천복원 사례.
◀생태연못의 무늬부들.

■ 생태하천이나 연못에서 잘 자라는 식물

구분	종류
제방이나 연못주변지역	띠, 옥부쟁이, 물억새, 수크령
물가에서 물을 정화해주는 식물	부들, 갈대, 애기부들, 미나리, 달뿌리풀, 사초
물에 잠겨서 자라는 침수식물	가래, 물수세미, 붕어마름, 어항마름
물가에서 잘 자라는 나무	버드나무, 갯버들

유기농 도시농업용 신제품

텃밭자재

상지텃밭용 유기배양토 작은텃밭 18L

유용미생물과 양질의 유기물 등으로 배합, 발효되어 가볍고 영양 가득 작물재배에 알맞습니다.

그로우백 17~21L

임체소용과 열매채소용 두가지로, 손잡이와 물받침 구멍이 있어 실내 텃밭으로 안성맞춤!

상지 텃밭용 발효 퇴비 원예용 흙나라 1kg

유기농 원료로 부숙, 발효된 유기질 퇴비. 작물이 심어진 화분에 한 주먹씩 공급하면 충분합니다.

텃밭용 종합관리세트 텃밭사남매

병이 생겼을 때 - 일살림S
작물을 튼튼하게 - 일나라
작물에 생기름! - 비타엑스
벌레가 생겼을 때 - 진달레그린

텃밭용 부숙 발효 퇴비 휴살림 균배양체 그린 10kg

작물에 천연양분, 미생물, 발효유기물을 동시에 공급! 작물 심기 10일 전에 살포하고 발을 만들어 줍니다. 5평 텃밭에 1~2포 정도 사용하면 돼요.

구입 및 문의사항 043-216-8179 | 쇼핑몰 <http://shop.heuksalim.com> | 입금처 농협 323-01-063992 | 예금주 (주)휴살림

“흠살림 꾸러미는 믿을 수 있다”

가족 꾸러미' 소비자 대상 설문조사

흠살림 꾸러미가 친환경이라는 것에 믿음이 가고 품질에 대체로 만족하지만, 소비자들이 구성 물품을 선택할 순 없을가요? 흠살림은 지난 8월 꾸러미를 이용하고 있는 한 기업체의 가족 꾸러미' 소비자를 대상으로 만족도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현재 구매 중인 꾸러미의 신선도나 맛 등 품질에 대해서는 82%가 보통 이상(만족 43%, 매우 만족 10%)이라고 답변했다. 또 친환경 안전성에 대해서는 70%가 신뢰(아주 신뢰 14%)하고 있음을 밝혔다. 꾸러미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는 보통 이상이 81%(매우 만족 8%, 만족 45%)로 나타났다. 반면 현재 구매 중인 꾸러미의 양이 적다고 답변한 소

비가 34%, 가격이 비싼 편이라고 생각하는 소비자가 51%(매우 비싸다 10%)에 달했다. 꾸러미 외부 박스에 대한 불만은 2%에 불과했지만, 내부 포장 상태에 대해서는 조금 더 많은 6%가 불만을 표시했다. 현재 가족 꾸러미의 경우엔 기업체의 지원이 있는데, 만약 지원이 중단됐을 경우 계속 구매할 의사가 있는 소비자는 12%, 모르겠다가 28%를 차지했다. 구매 중단을 선택한 소비자들의 가장 큰 이유는 가격에 대한 불만(49%)과 품목 선택이 불가능(30%)하다는 점을 들었다. 반대로 계속 구매할 의사가 있는 소비자들은 구매의 편리성(36%), 가족의 건강(32%), 품질 만족(20%) 덕분에 구매를 지속

할 뜻을 내비쳤다. 가족 꾸러미 소비자들의 요구 사항을 들어보면, 품목을 선택할 수 있기를 바라는 사람이 많았으며, 요일별 레시피나 품목별 레시피가 있으면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의견이 있었다. 또 양배추 같은 부피가 꽤 큰 것들은 토막을 내서 보내주거나, 제품 특성에 맞도록 포장을 선택했으면 좋겠다는 의견도 있었다. 당노 꾸러미나 암환자 꾸러미 같은 환자를 위한 꾸러미를 개발하거나 하나의 음식을 만들 수 있는 재료들로 구성된 소포장 꾸러미를 제안해 준 소비자들이 있었다. 흠살림은 이번 설문조사를 통해 드러난 소비자들의 요구사항을 적극 반영해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꾸러미가 되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다.



블로그 엿보기

달콤한 과일 꾸러미' 배신하지 않네요!



흠살림 과일꾸러미가 도착했다. 유기농 대추 방울토마토 1kg, 유기농 포도 1kg+500g, 저농약 자두 1.5kg, 유기농 목숭아 6입, 자두는 크기가 실하고 과질이 아주 좋다. 맛은 단 것도 있지만 밍밍한 것도 섞여 있었다. 포도는... 너무 너무 달다. 보통 포도보다 알이 작긴 한데

처음부터 끝까지 배신 안하고 달다. 이렇게 단 포도는 처음이다. 거의 짭 수준. 그 다음은 내가 좋아하는 복숭아... 생긴 건 보통보다 작고 딱딱하고 완전히 안 익은 것 같은 느낌. 하지만 역전! 너무 맛있다. 단물이 푹푹 베어난다. 이번 달도 날 배신하지 않은 흠살림 꾸러미였다. 출처 <마림바> 블로그

안전한 먹거리가 싱싱 매 달, 매 주마다 배달되니 따로 장보러 안 가도 되고, 좋은 품질의 믿을 만한 제품을 싱싱하게 먹을 수도 있고요~ 각 형편과 사정에 맞추어 선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유기농, 친환경 제품으로 안전한 먹거리 제공! 장보는 번거로움 해결! 계절의 싱싱한 제품 확보! 여러분도 꾸러미 한번 이용해보세요~! 이외의 다양한 상품들은 홈페이지(shop.heuksalim.com)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햇지>블로그

흠살림 휴가 농업과 환경을 생각하는 흠살림

흠과 햇살이 주는 건강한 선물

흠살림꾸러미

친환경 채소 과일과 채소를 매주 집에서 흠살림꾸러미로 가족의 건강을 지켜주세요.

생활꾸러미

가장 기본이 되는 꾸러미입니다. 유기농·무농약 채소를 중심으로 무항생제 방사능없는 우리콩 두부 및 국산 농산물로 만든 간식거리로 구성된 꾸러미입니다. [월 5회 / 10만원 / 월 3회 / 5만원]

채소꾸러미

채소만 매주 신선채소를 원하는 분을 위한 꾸러미입니다. 생활꾸러미에서 케첩이나 된장, 수선기공품은 빼고 유기농·무농약 채소를 모았습니다. [월 4회 / 12만원]

과일꾸러미

과일만 농약없이 기르기 힘들어 아무 해나 구할 수 있는 농산물이 아닙니다. 친환경 과일과 맛과 향을 느낄 수 있는 과일꾸러미입니다. [월 2회 / 12만원 / 월 1회 / 6만원]

흠살림꾸러미는 무엇이 좋은가요?

- 건강한 먹거리, 직거래로 편안하게 받아오실 수 있는 친환경 농산물로 안심하고 매주 품목을 달라지게 보냅니다.
- 안전하고 건강한 방식입니다. 농부가 안전하고, 입장에서 가까운 직거래를 할 수 있습니다.
- 생산과 소비의 나눔 공평을 실현. 생산과 소비를 통한 공평을 실현합니다.
- 매주 꾸러미가 기대돼요! 반박도든 시장에서 만나지 못하는 다양한 상품을 원하시면요.

꾸러미 구입문의 080-858-6262 | 010-9884-8007(분자상당가) | shop.heuksalim.com

Copyright © WNK&C, Ltd. All rights reserved.

지역이 함께 농업이 있는 생활' 추구

일본의 유기농업 현황 ④

자급을 목표로 하는 농사 모임 '노노카이'

■ 지역밀착형 유기농업 사례: 아시가라 노노카이

일본의 유기농업은 생산자와 소비자가 직접 만나는 제휴의 형태로 시작되었는데 최근에는 이러한 만남이 더욱 다양한 형태로 '지역'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생산자와 소비자가 보다 가까운 곳에서 접할 수 있는 기회를 늘리는 것을 통해 자신들의 지역 환경에 대해 보다 구체적으로 고민하고 눈에 보이는 안전성을 확보하고자 하며 멀리 이동함으로써 발생하는 불필요한 부하를 줄이고자 하는 노력이라고 할 수 있다. 이를 필자는 특히 지역밀착형' 유기농업이라 부른다. 여기서는 지역밀착형 유기농업의 사례로 아시가라 노노카이(아시가라 지역에서 농사 짓는 모임이라는 뜻. 이하 노노카이)를 소개하고자 한다.

노노카이는 도쿄에서 서쪽으로 한시간 가량 떨어진 가나가와현 오다와라시를 중심으로 하는 아시가라 지역에 위치하고 있으며 지역과 제철 먹거리, '자급'을 이념으로 1993년에 설립되었다. 2004년부터는 NPO(비영리단체)법인으로서 활동하고 있다. 이 모임은 가능한 한 지역의 자원을 활용하여 생산자만이 아니라 소비자를 포함하는 지역 주민과 함께 자급가능한 농업이 있는 생활'을 추구하고자 하고 있다.

이러한 이념에 따라 노노카이는 생산자로만 구성된 단체가 아니라 농산물을 사먹는 소비자들과 노노카이의 활동에 관

련된 지역 주민들까지도 멤버로 생각하는 좀 느슨한 형태의 모임이라고 하겠다. 지역에서 예전부터 농사를 지어오던 사람부터 새롭게 귀농을 시작한 사람들을 포함하여 약 20세대의 농가와 소비자 100가구 정도가 함께 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 귀농하겠다고 마음먹는 것만으로는 토지를 구할 수 없을뿐더러 바로 농가가 될 수도 없다. 우선은 지역에 있는 농업위원회로부터 농가자격을 인정받아야 하는데 지역마다 조건도 기간도 다르다. 이는 농지의 도시적 전용을 막고자 하는 이유 등에서 보면 필요한 제도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농사에 뜻을 두고 지역에 들어온 귀농자들에게는 장벽이 되기도 한다. 오다와라시의 경우에는 시로부터 논, 밭을 빌려 6개월에서 1년간 연수기간을 거쳐야 한다. 오다와라 지역에 들어와 농사를 지으려는 귀농자들은 지역에서 이미 신뢰가 형성된 노노카이의 모임에 참여함으로써 손쉽게 임대할 땅을 구할 수 있고 지역에서 오랫동안 농사 지어온 농가들로부터 유기농업기술에 관한 다양하고 유용한 정보를 얻고 있다.

■ 지역 주민과 함께 하는 다양한 활동

노노카이는 기본적으로 제철 먹거리를 중심으로 한 꾸러미 형태로 일주일에 두 번 농가들이 직접 소비자들에게 농산물을 배달해주고 있다. 소비자의



노노카이의 공동 녹차밭. 지역 주민들이 필요한 만큼 직접 녹차를 따 간다.

요청에 따라 몇가지 농산물을 더 넣기도 하고 시기에 따라 돼지고기나 직접 만든 가공품들이 추가되기도 한다. 꾸러미 박스 안에는 뉴스레터 형식으로 농가 그리고 지역 농업 소식을 짚막하게나마 전해주는 일도 잊지 않는다.

이러한 판매 활동 이외에도 지역 주민과 함께 하는 자급자족적인 활동들도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우선 10개 이상의 공동의 논에서 200가구 정도의 지역 주민들이 자급을 목적으로 논농사를 하고 있다. 고품질로 인해서 농사를 포기하는 농가들이 늘어나면서 자연스레 휴경지로 전락할 뻔한 논을, 노노카이라면 믿고 맡기겠다 하여 노노카이 멤버들이 임대하여 농사를 이어가게 된 것이다.

노노카이에는 공동의 녹차밭도 있는데 곶을 생산하다 휴

경지로 방치되었다가 노노카이가 맡으면서 몇 년간에 걸친 멤버들의 노력으로 땅심이 회복된 이후 매년 지역 주민들이 직접 자신이 필요한 만큼 녹차를 따가는 형태의 자급자족적인 활동을 해나가고 있다. 2006년과 2007년에는 필자도 연구실 후배들과 함께 녹차밭을 따라 가기도 했다. 직접 따고 맛도 일품이었던 것으로 기억한다. 안타깝게도 2011년에는 동북지방 대지진 직후 바람의 영향으로 방사능의 직접적인 피해를 입기도 해서 2년 이상 토양을 걷어내는 작업을 통해 작년부터 다시 녹차밭 따기 행사가 진행되었다.

또 다른 활동으로는 요리모임이 있어서 다양하게 제배된 유기농 채소들을 요리하는 방법을 연구하여 소개하고 있다. 최근에는 콩모임을 통해 된장, 간

장 만들기도 도전하고 있다. 노노카이는 한 달에 한 번 전체 모임을 갖고 있는데 이 자리에서 자신들의 논, 밭에 관해 보고하고 다양한 활동들에 대해 정보를 공유하면서 서로에 대해 알아가는 시간을 가지게 된다. 그 밖에도 일년에 한 번 수확제를 열어 지역 주민들과 마을 잔치를 하기도 하고 지역의 학교급식에 쌀을 납품하거나 지역 장터 행사, 논생물다양성 조사, 지역 물고기 살리기 운동 등의 활동에도 참여하여 그 영역을 넓혀나가고 있다.

이렇듯 노노카이는 소비자들과 지역 주민이 함께 할 수 있는 다양한 활동과 정보의 제공을 통해 자신만의 소비자들을 확보해가고자 하고 있으며 그 안에서 끈끈한 연대를 지속해가고 있다.

글 김기홍 충남발전연구원 책임연구원 및 휴살림 자문위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지정 친환경농산물 1호 인증기관



한국농식품인증원

Korea Agricultural Product and Food Certification



한국농식품인증원은 좀 더 나은 농업농촌을 생각하는 소비자와 친환경농업농가들이 함께 자립하는 인증기관입니다. 친환경농업에 대한 신뢰와 철학, 전문성을 바탕으로 친환경농산물, 유기식품, 위급차 인증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농식품인증원의 전문적이고, 객관한 인증시스템을 통해서 소비자들이 더욱 신뢰하는 친환경농업, 농가에게 이익이 되는 친환경농업을 만들기 위해서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주소: 충북 청원군 오성동 길리 1길 7 오성면사무리자 203호
 전화: 043-212-0934 팩스: 070-8877-3320
 홈페이지: www.kapc.kr 이메일: admin@kapc.kr



온 가족이 모여 만들면 더 맛있는 송편

고은정의 농식약동원

팔월이라 중추되니 백로 추
분 절기로다.(중략)
북어(北魚)해 짓조기로 추석
명일 쇠어 보세.
신도주(新稻酒) 오려 송편
박나물 토란국을
선산(先山)에 제물하고 이웃
집 나눠 먹세.
- 농가월령가 8월령 중에서

아직 여름의 끝자락인 것 같
은데, 가을을 느낄 겨를도 없
는데 달력을 보니 곧 추석이
란다. 수업이 있어 도시의 백
화점에 갔더니 벌써 명절선물
영업 하느라 정신이 하나도 없
다. 집집마다 송편을 빚고 돼
지기를 흥건한 소당에 빈대떡
을 부쳐 나누던 풍습은 사라지
고 백화점에 부탁해 포장에 그
럴듯한 선물을 나누는 시대가
되었으니 아쉽고 씁쓸한 마음
이 가지지 않는다. 교통대란이
일어나는 불편함은 있으나 그
나마 아직은 찾아갈 고향과 부
모님이 계시고 그곳에 가면 근
근이 유지되고 있는 추석문화
가 있으니 다행이라 생각해야
하는 건지도 모르겠다.
어찌 되었든 곧 추석이고, 제
사음식(혹은 차례음식) 자랑
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있다.

아마도 지방마다 가정마다 올
리는 음식이 다르니 그 지방이
나 그 가정의 음식문화를 인정
한다는 의미일 것이다. 일반적
으로 설명절에는 제사의 피 대
신 떡국을 올리고 추석명절에
는 송편으로 대신하기도 한다.
내가 살고 있는 지리산의 이
산골마을에서는 피도 올리고
떡도 올린다. 더 재미있는 것
은 10여 가구 남짓 살고 있는
이곳에서 어떤 집은 송편을 올
리고 또 어떤 집은 거피한 팔
을 올린 찰시루떡을 올리고 있
으니 명절음식은 그야말로 가
정마다의 개성이 보전되고 있
는 음식문화의 한 단면이 아닌
가 생각하게 된다.
추석음식을 차리기 위해 준비
하는 여러 가지 식재료 중에 으
뚝은 단연 햅쌀이다. 멀리 다른
마을 이야기를 할 필요도 없이
우리 마을 이야기를 하자면 논
이 한 자락도 없는 마을이라 나
는 당연히 햅쌀을 사서라도 밭
을 하고 송편을 만들었을 것이
라 생각했다. 그러나 지금은
구경도 할 수 없는 이곳에도 88
고속도로가 생겨 관광지로 변
잡해지기 전에는 다랭이논이
꽤 있어 햅쌀밭을 해서 상에 올
렸다고 한다. 하지만 그 밭은



추석엔 햅쌀로 만든 하얗고 뽀얀 송편을 나누어 먹는 것이 제맛이다.

흰밥이 아니고 노란색의 밥이
었다고 한다. 이곳 마을은 지리
산 구석 해발 600고지나 되는
곳이니 기운이 낮아 추석 무렵
에는 아직 나락이 제대로 여물
지 않는다. 궁여지책으로 상에
올릴 만큼만 흙이다가 찌서 말
리는 올개쌀로 밥을 짓기 때문
에 흰밥 대신 노란색의 밥이 차
례상에 오른다. 하지만 송편을
만들기 쉽지 않아 아껴두었던

햅쌀로 편을 찌서 올리는 문화
가 생겨난 것이다.
뒷산에서 주운 도토리를 모았
다가 목을 쭈어 통째로 올리는
낮섬, 집에서 키우는 닭이 낱
은 알들을 모아두었다가 삶아
예쁘게 오리고 장식해 올리는
여유 등이 묻어나는 추석의 색
다른 문화가 있는 지리산의 산
골마을에서 나는 시어머니께
가정의례준칙에 따라 차례를

간소하게 지내자고 목소리를
키우던 때를 자책하게 한다.
다양한 가정의 음식문화가 존
중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편
의니 합리를 내세우던 나의 과
거를 반성한다. 그래서 올 추
석에는 햅쌀로 희고 뽀얗게 송
편 만들어 마을 분들과 나누어
먹어야겠다.
글 고은정 약선식생활연구센
터

풍요로움의 절정 '추석'

웰빙식의 최종 진화 '세시음식'

예로부터 오월 농부 팔월 신
선'이라 하여 바쁜 일손을 잠
시 쉬는 1년 중 가장 즐거운
명절이 추석이다. 추석에는
하늘과 땅 위, 땅 밑의 열매
를 모두 먹는다는 의미에서
차례상에 토란국과 송편, 과
일을 반드시 올렸다. 송편은
하늘의 열매로 달을, 과일은
땅 위에서 나는 것으로 땅을,
토란은 땅 밑을 상징하는 열
매이다.
오려송편은 송편의 한 종류
로 '오려'란 울벼를 뜻하는 말

로 그 해 추수한 햅쌀을 가루
내어 빚은 떡이라 하여 붙여
진 이름이다. 강원도는 네모
지게 손자국 모양을 내어 큼
직하게 빚는데 혼한 재료인
도토리, 감자 등을 이용해 송
편을 빚는다. 전라도 고흥에
서는 모깃잎을 넣은 모시송
편을 차례상에 올리는데 빛
깔이 곱고, 맛이 씹쌀하여 방
부효과가 뛰어나 쉽게 상하
지 않는다. 제주도에서는 완
두콩으로 소를 넣어 등글게
비행접시 모양으로 빚었으

며, 서울 지방은 한입에 쏙 들
어가는 양중맞은 크기로 만
든다. 평안도 해안 지방에서
는 볶아서 짙은 참깨를 설탕
과 간장으로 버무려 소로 넣
고 모시조개 모양으로 빚은
조개 송편을 먹었다.
예부터 추석에 무병장수를
기원하며 토란에 들깨와 쌀
을 갈아넣고 끓여 토란탕을
해 먹기도 했다. 토란은 흙 속
의 알이라는 뜻으로 토란(土
卵)이라 하며, 연잎같이 잎이
피졌다 하여 토련(土蓮)이라
고도 하는 뿌리채소이다.
출처 농촌진흥청 인테러빙
세시음식'



서울오색송편



토란

식이섬유 칼륨 풍부한 다이어트식

■ 토란탕 속의 영양학
토란탕은 식이섬유와 칼륨이
풍부해 다이어트식으로도 좋
으며, 토란과 들깨의 영양을

한 번에 섭취할 수 있는 최고
의 영양식이다. 칼륨은 나트
륨을 배출시켜 과다섭취하기
쉬운 염분섭취 걱정을 줄여준

다. 들깨에는 오메가-3 지방
산인 리놀렌산이 다량 함유
되어 혈압을 낮춤으로 심장순
환에 질환을 예방하며 면역기
능, 항암, 어린이의 두뇌발달
에 좋다고 알려져 있다.

이달의 흙살림 자재

과워진달래



- 1. 등록사항
 - 유기농업자재 : 공시-3-2-5
- 2. 원료: 님추출물, 피마자추출물, 유채추출물
- 3. 사용량
 - 500배 희석액을 해충이 흠뻑 젖도록 살포.

배추벼룩잎벌레 방제 효과

■ 사용방법 및 주의사항

- 1) 자사 타 살충제와 혼용은 가능하나, 타사 제품과 혼용시 유의바랍니다.
- 2) 고온기 살포 시 주의해야 하며, 이른 아침 사용을 권장합니다.
- 3) 약해 발생 시 물로 충분히 잎을 씻은 후 바이오슈과 빛모음을 엽면살포 합니다.
- 4) 사용 전 충분히 흔들고, 물에 탄 다음에는 약액을 잘 저어서 살포해야 합니다.
- 5) 사용하고 남은 자재는 밀봉 후 서늘한 곳에 보관합니다.
- 6) 수정별 방사 시 사용을 금지하며, 약제 살포 전, 후 방사해야 합니다.

■ 특징

- 1) 유기농업자재 공시품으로 진딧물, 응애, 잎벌레등에 효과가 좋습니다.
- 2) 사용이 간편합니다.
- 3) 인축 독성이 낮습니다.

■ 효과

- 1) 시험연도 및 기관 : 2010년 충북대학교 산학협력단
- 2) 대상해충 : 목화진딧물(*Aphis gossypii*)
- 3) 시험작물(품종) : 오이(조선오이)

4) 처리방법 : 경엽처리

7일 후 생충수 조사, 약제처리 3, 5, 7

5) 조사방법 : 약제처리 전 및 처리 3, 일 후 약해조사

표1. 약효 시험 결과(약제처리 후 3일 차)

시험 약제	처리전 밀도 (마리/구)	생충률(%)				유의성 (DMRT)	방제가 (%)
		I	II	III	평균		
과워진달래	170.3	48.7	51.6	58.0	52.8	a	67.2
무처리	194.3	170.4	159.6	153.7	161.2	b	-

C.V.(%) 8.6%

표2. 약효 시험 결과(약제처리 후 7일 차)

시험 약제	처리전 밀도 (마리/구)	생충률(%)				유의성 (DMRT)	방제가 (%)
		I	II	III	평균		
과워진달래	170.3	39.9	52.9	49.0	47.2	a	73.0
무처리	194.3	174.1	167.0	183.2	174.8	b	-

C.V.(%) 7.4%

■ 결론

가. 약효 시험결과 처리 후 3일차에는 67.2%, 7일차에는 73.0%의 방제 효과를 나타내었다.
나. 기준량 및 배량 처리구 모두에서 약해는 나타나지 않았다.



살포 전 살포 후

● 자급중자 농가를 찾습니다

흙살림 신문이 자급중자 운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종자를 직접 자급하고 있는 농가나 그런 농민들을 알고 계신 분이 있다면 흙살림에 연락을 주세요.

연락처 : 흙살림 사무국 043-833-5004

이철수 판화가의 나뭇잎 편지

유기농 인증을 파행으로...



흙살림 신문이 광고를 받습니다

흙살림 신문이 광고를 받습니다. 유기농자재는 물론 농산품, 농업관련정책 등 농업과 관련된 소중한 정보를 흙살림 신문을 통해 전달하세요. 흙살림 신문은 흙살림 회원과 생산농가, 농업관련단체, 꾸러미 회원들은 물론 도시농부와 소비자들이 모두 읽는 소

식지입니다. 꼭 필요한 정보를 원하는 대상에게 정확히 전달해 줌으로써 목적하신 효과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됩니다. 유기농업의 믿음 가는 동반자 흙살림과 함께 하세요. 흙살림 신문 광고 문의: (사)흙살림 연구소 사무국 (043-833-5004)

신개념 기능성 복합 상균제 슈퍼도움이



제품의 특징 및 효과
슈퍼도움이는 국내 환경에서 자란 우수한 균주 중에서 선별된 미생물을 사용하였습니다. 유익한 미생물의 양과 활성을 극대화하여 장내 생체적인 불균형을 해소합니다. 철저한 사용성검사와 위생적인 제조공정을 거쳐 생산되며, 높은 균 밀도를 유지하여 발효에 의한 가축의 질병 원인이 줄어들고, 면역기능을 증진 시켜줍니다. 배설물, 유기농산물 등에 포함되어 번영을 돕고 질병을 예방하여 생산성을 높입니다. 대장균, 살모넬라균을 억제하여 장내 미생물총에 유익한 변화를 유도합니다. 미생물의 대사 부산물이 장내 산도를 조절하므로 위액 분비가 억제됩니다. 분뇨의 악취를 감소시켜, 발효축산으로 분뇨의 질을 향상시킵니다. 유전자 조작은 전혀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고추균, 유산균, 효모균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용방법
배설물에 혼합 : 사육 300마리 당 1~10g을 혼합하여 사용.

사료비 절감을 위한 발효도움이



제품의 특징 및 효과
발효도움이는 흙살림의 특수발효 기술을 바탕으로 선별된 우수한 미생물을 사용했습니다. 발효도움이는 국내 환경에 알맞은 우수한 생균제 제품입니다. 유익한 미생물의 양과 활성을 극대화하여 생체적인 불균형을 해소합니다. 알모나, 마린 등과 같은 유해가스 감소 효과가 있습니다. 각종 유기산의 생성으로 소화효소를 활성화 시킵니다. -기호성을 증가시켜 사료섭취를 향상시킵니다. 분뇨의 악취를 감소시켜 발효축산으로 분뇨의 질을 향상시킵니다. 발효사료 제조시 발효환경을 최적화 시킵니다.

사용방법
천국 200kg 기준으로 발효도움이 1도량(1도량 100g) 혼합 (TMF 제조시 천국 1도량 500g) 혼합

구입 및 문의사항 043-216-8179 | 쇼핑몰 http://shop.hesallim.com | 입금처 농협 323-01-063992 | 예금주 (주)흙살림



기후변화와 먹거리' 교육

대전 교장선생님 대상
지난 8월 19일 충북 괴산의 토종연구소에서는 대전의 초·중·고등학교 교장선생님을 대상으로 기후변화와 먹거리에 대한 교육이 진행됐다. 대전 지방 기상청 주최로 이루어진 이

번 교육은 건강한 먹거리에 대한 이야기와 살아있는 흙을 위한 유기자재 만들기를 직접 체험해보는 시간을 가졌다. 최시영 (사)식생활교육충북네트워크 사무국장은 기후변화와 먹거리라는 주제로 주변의 먹거리가 어떻게 하면 건강성을

되찾을 것인지를 이야기했다. 휴살림연구소는 유기자재를 직접 만드는 법을 소개했다. 학교에서 텃밭을 경작하고 있는 한 교장 선생님은 이번 교육을 통해 직접 만든 유기자재를 학교 텃밭에 뿌려보겠다며 자재를 챙기는 열성까지 보였다.

휴살림 생산 농가 연수

매달 1박 2일 교육

(사)휴살림연구소가 휴살림 유통에 참여하고 있거나 참여를 희망하는 농가들을 대상으로 유기농업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매달 1박 2일간 진행되며 9월엔 22~23일 교육이 예정되어 있다. 휴살림의 유기농업 교육프로그램은 휴살림의 철학과 함께 휴살림의 흐름과 발전 방향

을 제시하고, 휴살림의 생산 기술을 통해 실천 방안을 모색해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이와 함께 꾸러미 유기농 매장 학교 급식 등 휴살림의 다양한 유통채널을 소개하고 함께 참여할 수 있는 방안도 찾아보는 시간을 갖는다. 또한 교육 참여농가들이 이번 교육을 통해 건강한 흙과 유기농 퇴비 만들기, 병충해 방제 기술 등을 배움으로써 유

기농업의 단단한 기본기를 갖추 수 있도록 도움을 줄 것이다. 휴살림과 함께 유기농업의 길을 걷고 싶으신 생산자 농민들과 귀농인 여러분의 많은 관심을 바란다. 기타 자세한 교육 일정과 내용에 대해선 휴살림연구소로 문의. 전화 043-833-5004 팩스 043-833-5007 이메일 nedjem@hanmail.net 홈페이지 www.heuk.or.kr

휴살림연구소 현장실습교육생 모집

■ 교육소개

- 현장실습교육(WPL)이란?
 - 선농업인의 기술과 현장 노하우를 현장 실습 교육 습득으로 경쟁력 제고
 - 영농현장에 적용할 수 있는 선진영농기술 습득으로 현장 적용 능력을 향상시킴

■ 휴살림연구소 현장실습교육장 정보

- 장소: 충청북도 괴산군 불정면 쇠실로 286-138
- 유형 및 품목: 전국대표실습장/수도작, 시설채소류

■ 교육과정 소개

○ 교육 과정 및 모집 시기

구분	대상	모집기간	교육일시	내용	교육비(1인)
유기자재 만들기	귀농인 농업인	2월-11월	2월-11월	-균배양재 완숙 퇴비 만들기 -액비 만들기	45,000원
친환경 시설채소 재배	귀농인	8월-9월	9월-10월	-시설채소 재배 실습	286,000원

■ 교육문의 상담

- 세부 교육 일정과 내용은 사단법인 휴살림연구소로 문의 해 주시면 감사드립니다.
- 교육문의: 전화)043-833-5004, 팩스)043-833-5007, 이메일)nicol112@heuksalim.com
- 은행 및 계좌번호: 301-0142-0798-61 / 농협 -입금처: 사단법인 휴살림연구소



휴살림 신문 독자 여러분께 알립니다

휴살림 신문을 애독하시는 독자 여러분들에게 먼저 고마운 마음을 전합니다. 휴살림 신문은 1992년 6월 제1호를 발행한 이래 여러분의 뜨거운 애정에 힘입어 지난 4월엔 200호를 맞이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대내외적 환경 변화로 인하여 신문 제작 발송 관련 비용이 점차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에 휴살림은 부득이하게 신문 발송에 있어 내실을 기하고자 합니다.

현재 휴살림 신문을 배달받고 있는 회원(독자)분들 중 신문이 담고 있는 정보와 소식, 인터뷰 등이 꼭 필요하신 분들에게만 발송을 지속하려 합니다. 신문을 계속 받고자 원하시는 분들은 (사)휴살림연구소 043-833-5004로 연락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만약 연락이 없다면 오는 10월부터 배달이 중지됨을 알려드립니다. 휴살림 신문을 성원해주신 분들에게 이런 소식을 전하게 되어 죄송합니다. 휴살림 신문은 앞으로도 더욱 알차고 재미있는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문의 (사)휴살림연구소 043-833-5004.

■ 8월 휴살림 주요 일정

날짜	장소	구분	인원	내용
5일	괴산	교육	40	익산농업기술센터 유기자재 만들기
7-9일	서울	박람회	-	충북친환경농업인연합회-친환경 유기농 무역 박람회 참가
11일	괴산	견학	15	공주농업기술센터
12일	옥천	견학	11	괴산군 유기농업리더 양성교육과정-옥천 산계틀, 청주 최기형, 휴살림푸드 청주센터 방문
14일	괴산	전시	-	괴산향토전시관에 토종종자 보급
19일	괴산	교육	25	대전지방기상청-기후변화와 먹거리
23일	괴산	교육	10	현장실습교육(WPL)
26일	괴산	교육	8	괴산군 유기농업리더 양성교육-성기남 선도농가
27일	괴산	행사	40	서울 친환경급식센터 급식 관계자
29일	괴산	견학	25	제천시 농업기술센터
30일	서울	행사	500	광진구 모종나눔 행사

■ 8월 회원 가입자 명단

최경주(서울), 정민수(대구)

■ 알림

휴살림 후원회원이 되어주세요. 자연과 인간이 어우러지는, 생명이 숨쉬는 땅을 만들기 위한 한 톨의 밑알을 뿌려주세요. 후원금은 우리 흙과 농업과 환경을 살리는 일에 소중하게 쓰일 것입니다. 문의: (사)휴살림연구소 사무국 043-833-5004. 후원금 및 회비 납부처: 농협 323-01-059315. 사단법인 휴살림연구소

■ 휴살림 후원회원 명단

강명임, 곽태성, 곽호석, 구현수, 권득산, 권사홍, 권영삼, 김갑태, 김경인, 김계향, 김광남, 김광부, 김난영, 김남운, 김동수, 김동연, 김동진, 김명실, 김병수, 김봉균, 김생수, 김신유, 김연철, 김영권, 김영철, 김원섭, 김윤목, 김이진, 김인훈, 김정곤, 김정순, 김창호, 김창환, 김홍희, 김형숙, 김현주, 나기창, 남기운, 도봉숲속마을, 도명수, 라병현, 라양재, 류훈희, 문상기, 민병용, 민성기, 민인기, 박규권, 박기선, 박기환, 박동윤, 박래훈, 박미경, 박미숙, 박미영, 박병희, 박상일(서울), 박상일(해남), 박성남, 박승희, 박안필, 박영숙, 박영범, 박의준, 박익순, 박정국, 박종삼, 박종수, 박종화, 박준순, 박재동, 박재환, 박호은, 반명수, 방미진, 배은아, 백미숙, 백운남, 서성내, 서순익, 서현주, 석종욱, 선호균, 성경숙, 성기남, 송기봉, 송동홍, 송중훈, 송재중, 송지은, 신동규, 신문수, 신연관, 신치영, 신희기, 심민보, 안정택, 양병근, 엄창근, 오과철, 오두연, 오지은, 유승찬, 유우현, 육종식, 윤국현, 윤미경, 윤성희, 이강욱, 이계수, 이기중, 이도훈, 이명환, 이미선, 이민채, 이병두, 이셋별, 이석천, 이상원, 이승훈, 이양희, 이완호, 이우정, 이은미, 이일웅, 이재숙, 이재웅, 이재형, 이재희, 이정필, 이정호, 이종국, 이준규, 이진태, 이태근, 이필규, 이향순, 임승익, 임원택, 장동철, 장명숙, 장명순, 장정수, 전광석, 전희수, 정광영, 정구홍, 정규원, 정기인, 정기환, 정명순, 정석조, 정인숙, 정창환, 정창천, 조광윤, 조기진, 조복남, 조정신, 조종기, 조희주, 주영직, 주윤식, 천호균, 최관호, 최광욱, 최광열, 최서연, 최은숙, 최유라, 최인철, 최춘식, 편용길, 하재우, 한인성, 함선녀, 함종식, 허병문, 허상오, 허현욱, 홍승면, 홍정욱, 홍중윤, 황정연, 황정희.

○ **흡사림 생육촉진·품질향상용** ○

○ **자가 액비 제조세트** ○



<p>활인산 10L</p> <p>양분가용화, 발효, 생육촉진 공사4-1-119</p> 	<p>빛모음 1 L</p> <p>뿌리보호, 활착, 세균발달 공사4-1-26</p> 	<p>생선아미노산 10L</p> <p>유기농 액비, 양분공급 공사1-1-21</p> 	<p>바이오숨 10L</p> <p>생육밸런스조절, 미네랄, 당도수량증가 공사3-1-4</p> 	<p>해초 250gx2병</p> <p>비대촉진, 천연호르몬, 아미노산 공사4-1-24</p> 
<p>당밀 10L</p> <p>발효 미생물 탄소원, 미량요소</p>				